

■ 태풍 북상…이렇게 하면 농작물 피해 줄인다

## 논 물관리·과수 지지목 처방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불어닥치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와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태풍 '루사'나 2003년 태풍 '매미'에 버금갈 것으로 보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태풍 '루사'는 23만9000㏊의 농경지를 침수시켰으며 무너진 바닐하우스는 120㏊에 달했고 폐사한 가축은 241마리였다. 수리시설도 4484㏊가 파손됐다. 농작물과 수리시설 피해 등을 복구한 데 무려 1조2699억원

이 들어갔다. 이듬해 불어닥친 태풍 '매미' 역시 피해 복구비용이 8624억 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17개 지자 직원들은 2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태풍대비 농·어업 재해예방대책 매뉴얼에 따라 농작·축산·농업시설 부문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태풍피해 방지자를 위해 축사지붕 고정과 과수 지지목 설치 등 긴급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바람이 거칠 때는 일시적으로 논물을 깊이 대 벼 쓰러짐을 예방하

라고 당부했다. 거의 익은 고추·콩 등은 서둘러 수확하고, 고추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도 강한 바바람에 의해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밭침대를 밟쳐주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원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논이나 밭이 물에 잠기면 양수기 등으로 신속히 배수작업을 하고 도열병, 흰빛 마름병 등 병종해 예방에도 힘쓸것"을 주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남 재해보험 혜택 모두 8곳

담양·순천·나주·영암  
광양·보성·화순·곡성

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이나 NH농협 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에가입한 농가는 태풍 피해액과 가입 시 정한 보상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연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4000여만원이다. NH농협 손해보험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시 태풍으로 인해 받은 농작물 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2010년 6만9000여건 ▲2011년 22만6000여건 ▲올해 6월까지 24만 5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침수 피해가 가장 심한 벌은 지난해 12만여건에서 올해 6월까지 19만건으로 보험 가입

이 늘었다. 시설하우스 작물의 도내 수해지역은 기존 담양·순천·나주·영암에서 올해 광양·보성·화순·곡성 등 4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 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훔쳤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등산 수박 백화점 납시오"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섬유질 많아 씹는 맛이 좋고 단맛도 풍부해 과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10대 재벌 총매출 GDP의 77%

을 1000조원 돌파

10대 그룹의 지난해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10대 그룹의 총 매출은 946조1000억원으로 지난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액수인 1237조1000억원의 76.5%에 달했다.

10대 그룹의 GDP 대비 총매출의 비율은 2002년 53.4%에서 2008년 63.8%로 상승한 뒤 3년 뒤인 2011년에는 80%에 유통했다. 10년 사이에 23%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총 매출액은 2002년 365조5000억원의 2.6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GDP는 1.8배로 늘어

나는데 그쳤다.

올해 10대 그룹의 총 매출액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별 지난해 매출을 보면, 제계 1위인 삼성그룹의 국내외 총 매출은 270조8000억원으로 한국 GDP의 21.9%에 달했다.

2위는 155조8000억원의 총매출을 올린 현대차그룹으로 GDP의 12.6%와 맞먹었다. 3위 SK도 GDP의 11.7%에 해당하는 144조2000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

LG그룹(9.0%)과 GS그룹(5.4%), 현대중공업그룹(5.0%), 롯데그룹(4.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화그룹(2.8%)과 한진그룹(1.9%), 두산그룹(1.7%)은 10대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수익금과 후원금은 'kbiz 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바자에 선보일 물품 협찬 및 성금 기부를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문의,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062-955-9966. /박정우기자 jwpark@kyonews.co.kr

## 이코노 & 비즈 피플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 사장

# "신약개발 맞춰 내년 코스닥 상장"

전남생의약센터 제휴…조혈제 완제품 생산

매년 매출 30% 고성장…11년 새 64배 키워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의 임상시험에 맞춰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한국프라임제약 김대익(45) 사장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스닥 상장과 바이오신약 개발이 완료되면 프라임제약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광주시로부터 우수고용기

업 인증을 받는 프라임제약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지난 2000년 매출 10억원 규모의 제약회사를 인수해 프라임제약을 설립한 김 사장은 매년 30%대의 성장을 보이며 지난해 매출 642억원을 기록, 국내 제약회사 250여

곳 중 50위권에 진입했다.

고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240명이던 근로자 수가 2년 사이에 270명으로 늘어 30명의 고용창출을 이뤘다.

김 사장은 올해 30억원을 투자해 연제캡슐 제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라인이 증설되면 매출이 3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기대돼 내년이면 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 증대만족 전남·북지역 청년들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장은 바이오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0여개의 바이오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ックス젠(주)과 슈퍼 바이오신약 특허 기술이전



(전용실시권계약) 및 연구개발 협약을 맺은 프라임제약은 지난 4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와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협약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EPO(Erythropoietin·조혈제), 오렌시아, 엔브렐 바이오 베타의 임상시료 및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표적암제·혈소판증강제·성장호르몬·백혈구증강

제 등의 제조 및 연구개발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EPO의 세계시장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며 "개발 중인 EPO는 4세대형 EPO로 혈압 상승·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낮아 만성신부전 환자 등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화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내에 100억원 규모의 보톡스 관련 바이오신약 개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김 사장은 "바이오신약 개발 투자는 투자성 벤처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하지만 프라임제약은 실적을 바탕으로 바이오신약을 진행하고 있어 안정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케미칼로 기틀을 다진 프라임제약은 바이오신약으로 도약하고, 줄기세포로 미래를 열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

가천대학교  
수시 1차  
신입생 모집

2012.8.27(월)~9.6(목)

명품 글로벌 교육

- ▶ 국내최초 기천대·하버드와 공동과정 운영
- ▶ 기천하와이교육원 설립으로 파격적인 현지 어학연수 혜택
- ▶ 2020년까지 국내 TOP10,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

입시문의 가천대학교 입학처 : 1577-0067

우수 특성화 교육

- ▶ 국내최초 우수인재 조기발굴을 위한 의대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 ▶ 경영대학, 건축대학 신설 및 법과대학 경찰·인보학 신설
- ▶ 경영대학에 글로벌경영학트랙 신설, 파격적인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2. 11.12(월) ~ 11.16(금)

최고가 최고를 만든다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가천대 IT부총장  
김원 박사  
가천대 연구부총장  
이길여 앙·당뇨연구원 원장  
세계 장수(長壽) 연구의 권위자  
**박상철 박사**

가천대 노과학연구소 소장  
세계적인 노과학자  
**조장희 박사**

뉴스워크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50인의 여성  
**이길여 총장**

가천대 석좌교수  
MD 앤디슨 암센터  
'미국 최고의사' 선정  
**김의신 박사**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  
KBS, MBC 명예의전당 한정  
**이순재 교수**